

‘수성이나 탈환이나’...혁신 vs 민주 vs 무소속 ‘각축전’

6·3 지방선거 격전지 D-22 <1>담양군수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텃밭 시수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조국혁신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직 단체장들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격전지로 분류되는 광주·전남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상황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관련기사 2·3·4면 /편집자註

6·3 지방선거 전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혁신당 현직 군수와 더불어 민주당 현직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혁신당 제1호 지방자치단체장 타이틀을 거머쥔 현직 군수 정철원 후보의 재선 행보에 맞서 텃밭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박종원 후보의 대결이 최대 관심사다.

7·8·9대 담양군의원, 9대 하반기 담양군의회 의장을 거쳐 민선 8기 담양군수에 당선된 정철원 후보는 높은 지역 내 인지도와 행정의 연속성을 고리로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호남 메기론’을 기치로 민주당 대안 세력을 자처하며 전남에만 13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는 등 정치적 기반 확장을 꾀하는 혁신당 입장에서 담양군수 사수는 지방선거 핵심 목표 중 하나다.

“다시 한번 정철원, 군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 후보의 5대 중점 공약은 ▲다시 천 년, 미래를 여는 담양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도시 담양 ▲자치농정으로 키우는 경제 자립 ▲소득이 창출되는 치유거점 관광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 행정이다.

세부 공약으로 농촌형 생활서비스 구축과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담양형 통합 돌봄서비스 확충, 수출·고소득작목 첨단·규모화, 담양형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철원, 행정 연속성 앞세워 ‘재선 행보’

박종원, ‘여당’ 지역발전 최적 후보 강조

최화삼, 경제 전문가 자임 세 확장 총력



정철원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담양,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담양으로의 변화는 이제 씨앗을 심는 단계로 시작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담양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철원을 선택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재선 전남도의원 출신인 박종원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발판 삼아 담양변화를 이끌 최적의 군수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5·7대 담양군의원, 11·12대 전남도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을 모두 경험하며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5·18민주묘지 묘비 닦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1주일 앞둔 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조화 교체 및 묘비 닦기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조영권 기자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향후 표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10일 담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담양의 핵심 예산을 중앙당에서 잘 챙기겠다”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은 ▲담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예산 1조원 확보 ▲중증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군사시설 이전 ▲농업 스마트 팜 전환 ▲원도심 활성화 등이다.

박종원 후보는 “16년 동안 군의원과 도의원으로 일하며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농업 소득 정체 등 담양

군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경험했다”며 “현장 경험과 정책 실행 능력,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담양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과 어르신 모두 머무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최화삼 후보도 다크호스로 평가받는다. 재선 담양군의원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를 자임하며 지지 기반 확장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 후보는 4·5대 담양군의원, 5·6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낸 토박이 정치인으로 지역 내 탄탄한 지지 기반과 조직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재보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

서 고베를 마신 뒤 정철원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중도 사퇴 없이 완주할지 여부도 관심 포인트다.

최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연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첨단 산업·물류단지 조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경제 구축 ▲스마트팜 확대와 농업 산업화 등 자립형 경제도시 담양이다.

최화삼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에 놓인 담양에는 경제를 살려본 경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양원일·담양=정승균 기자

7,822.24... ‘꿈의 8천피’ 눈 앞에

지수 4% ↑ ... 첫 7,800선 돌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고가

코스피가 전례 없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꿈의 8천피’ 시대에 다가섰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국내 증시를 지탱하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12면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24.24p(4.32%) 오른 7,822.24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8천피’까지는 177.76p만을 남겨두게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조8천889

억원, 기관은 6천247억원 각각 순매수해 ‘쌍끌이’ 장세를 연출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5천84억원 순매도해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11.51% 오른 18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할 때부터 8.72% 상승한 주가는 15.60% 오른 194만9천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초로 190만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6.33% 오른 28만5천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역시 이날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28만8천500원(7.45%)

까지 뛰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8.11%), 현대차(5.38%), 삼성물산(6.98%), HD현대중공업(4.10%), 기아(6.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1%)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78%), 두산에너빌리티(-1.23%), 삼성바이오로직스(-0.95%), 삼성전기(-1.53%) 등 일부는 내렸다.

이날 코스피 시장 내 835개 종목 중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147개인 반면, 하락 종목은 738개로 집계됐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8p(0.03%) 내린 1,207.34로 거래를 마쳤다. /임재만 기자·연합뉴스

알림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4강

이봉주 前마라톤 선수 ‘인생은 마라톤이다’

오늘 오후 6시 L7층장바이롯데호텔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4강을 12일 개최합니다.

4강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동구 L7층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이봉주(사진) 전 마라톤 선수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42.195km 한계를 슬하게 넘어온 대한민국 마라톤의 전설 이봉주 선수



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페이스메이커로 나섭니다.

역경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며 묵묵히 달렸던 그의 발자취는 지진 현대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결국 승리하는 그만의 진솔한 노하우는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일시=2026년 5월 12일(화) 오후 6시

▲장소=광주 동구 L7층장 바이 롯데 호텔

▲강사=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주제=‘인생은 마라톤이다’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오일의 꽃, 오늘의 빛

THE FLOWERS OF MAY,
THE LIGHT OF TODAY

2026. 5. 1. — 5. 31.

518민중항쟁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